

홀트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014 여름 이야기

vol.174

www.holt.or.kr





여름 이야기

올해 '입양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 사진 부문 대상을 받은 장상민(10)·상준(8)·상혁(5)·상현(2) 어린이. 시골벽적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함께 잡은 손, 영원히 놓지 않을 우리는 행복한 사형제입니다.(p.4 계속)

사진 | 이정탁 사진작가 후원·Studio H2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74호·계간 발행일 | 2014년 6월 13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조철행(자원개발실실장), 홍미경(홍보팀장), 신미숙(후원팀장), 이수연(국내입양팀장), 이은정(해외사업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이창신(입산복지타운), 박소민(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0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Contents

- 03 Holt Letter
- 04 입양, 우리 품으로
사랑하면 배가 되는 '아름다운 행복'
- 08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미소천사, 세상을 향해 웃다!
- 10 Love In World
희망의 디딤돌, 홀트드림센터(In Cambodia)를 가다!
- 13 곳곳GoodGood한 엄마
아픈 별을 가진 별바라기 엄마
- 16 기획
장애란 무엇인가?
- 19 홀트 인터뷰
입양에 대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홀트한사랑회 강은미 회장을 만나다
- 22 나눔이웃 나눔기업
함께 성장하는 나눔 이야기
영실업·아이엠유리
- 24 희망 풍경 1
우리도 이제는 동화작가! 편견을 던지고 희망을 엮다
- 27 희망 풍경 2
홀트에서 놀며 배우는 아이들
- 30 Holt News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홀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트아동복지회가 어느덧 창립 6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우리나라 복지 환경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고 자부했으나 최근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첫째, 우리 스스로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해온 데서 기인하고 둘째, 우리가 추구하는 아동복지사업이 시대의 절실한 요구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입양이 절실한 시기가 있었으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수행해온 것이 바로 아동복지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항상 상반된 평가는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아동 입양에 대해서는 더욱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절실한 입양에도 사회적인 관심에서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1955년에 시작한 홀트아동복지회는 그동안 아동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건강, 다문화복지사업, 보육사업 그리고 해외지원사업을 새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양으로 볼 때도 아동 입양은 전체 홀트의 업무 중 1/6 정도입니다. 홀트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사업은 장애인 복지며,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사업도 캄보디아에서 몽골로 그 영역을 넓혔으며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동 입양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홀트는 이제 그 규모를 줄이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과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는 입양된 아동 및 입양가족의 사후 상담 서비스의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미혼모의 지원을 확대해 자녀를 입양 보내지 않고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홀트도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맞추어나가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복지사업을 찾아 새로운 도전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홀트를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홀트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홀트 이사장 유창기 이사(기독교신문사 사장) 이해경 이사(서울복지재단 이사장) 임부웅 이사(HICS 수석고문)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부봉사대표)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고문)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본부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부속기관 홀트입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분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300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대구여린이집 T.053)746-7504 마포여린이집 T.02)334-4743 중동여린이집 T.02)375-6755 홀트여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여린이집 T.031)790-2970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돌·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사랑돌 www.holtlove.or.kr T.053)756-0184 아름돌 www.holtarum.or.kr T.02)334-4614 아침돌·아침들학교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achim.or.kr/sub08/sub08_1.php T.042)583-4006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 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 사무소(홀트드림센터)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전주영아원 T.063)222-1559

사랑하면 배가 되는 '아름다운 행복'

가정의 달 5월, 홀트에서는 입양의 날이 있는 11일을 기점으로 다양한 입양 관련 행사들이 열립니다. 그중에서도 8회째 진행하고 있는 입양가족사진 UCC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을 통해 가정의 품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축복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또는 서로 닮아가는 모습에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 공모전 당선 가족들, 그 따뜻한 사연들을 지금 함께 나눕니다.



대상 사랑하면 행복이 배가 된다더니

'첫째를 낳고 아들 셋을 입양하면서 더 큰 행복을 얻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 장희용 (부산시)

사랑해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신혼을 보냈습니다. 큰 아들이 생기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웠지만, 처음 부모가 된 우리 부부는 육아의 어려움에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늘 심심해하며 예민하게 보채던 큰 아들은 평생 친구인 둘째를 입양하게 되면서부터 동생이 생겼다고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부부도 조금씩 부모가 되어가는 법을 배웠고, 보석 같은 두 아들과 함께 감사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30개월쯤 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신의 출생과 생모에 대해 물어왔고, 형과 자신이 다름을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2010년 셋째 아들을 입양하면서, 둘째는 동생이 생겨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의젓해졌고, 셋째는 형들이 있어 행복해했습니다. 이 행복에 무척 감사해 2013년 기적같이 넷째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넷째는 아직 어리지만 형들이 셋이나 있어서 무엇이든 척척 알아서 잘하고 날마다 우리 가족을 웃게 해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복이 배가 된다더니 우리 가족은 사랑해서 행복이 제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해준 아들들로 인해 우리 부부는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6만 5,536배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유은석 (울산시)

제(작은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혁이를 입양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학창시절, 많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집에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해주고,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해주는 내 동생. 보통 성인이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과과는 교류가 점점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가족은 동생 덕분에 더 뭉치게 됩니다. 은혁이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자주하고, 뇌수막염에 걸리기도 하는 등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많이 걱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을 거의 안 갈 만큼 놀랍게 건강해졌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착한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내 동생. 장난도 많이 치지만 애교도, 배려심도 많은 우리 은혁이. 이러한 행복들을 전해주는 동생이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우수상 해피투게더

'꿈이 뭐냐고 하면 항상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내 동생, 우리 가족을 항상 행복에 웃게 하는 넌 이미 최고로 착한 사람이다.'



- ***** 사진 부문 수상작 *****
- 대상 : 장희용 <사랑하면 행복이 배가 된다더니>
 우수상 : 유은석 <해피투게더>, 조혜숙 <안녕 내 동생!>, 김정아 <똑 닮은 엄마와 아들>, 이동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
 입상 : 조익제 <코스모스 여행>, 신혜원 <닮아가는 우리 가족>, 정봉조 <물놀이보다 더 좋은 건, 우리가 한가족이란 것>, 김진경 <앵클 육아>, 김한수 <규달이의 백그라운드>

웃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

8년 동안 이어져온 ‘입양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은 해마다 작품의 수준도 높아지고,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인 만큼 다양한 사연들도 많이 응모됐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시상식 날의 풍경을 전합니다.

대상



내 동생을 소개합니다

- 오찬영 (인천시)

다니엘과 요셉은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가족에 게 온 아주 특별한 동생들입니다. 장난감이고 동생들 책임고 한가득, 부역도 동생들 우유부터 반찬들로 가득 차 정신이 없습니다. 동생들이 없었을 땐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깨끗해서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은 대충 방 정리를 안 해도 괜찮고 웬만하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는 것은 저의 임무이기도 하지요. 친구들이 “동생이 왜 이렇게 어리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어! 동생들은 우리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오게 된 동생들이야”라고 대답하죠. 그럼 대충 알아듣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거나 부

러워하는 눈빛을 짓는답니다. 친구들 중 형제 없이 혼자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엄마 아빠는 가족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처럼 입양을 하게 된 아이도, 그냥 낳은 아이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 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멋진 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동생으로 한 명 더 안 될까요?

제주도에서의 아름다운 행복

- 광상학 (서울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은택이와 은찬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것이 많았습니다. 비행기를 탄 것도, 바다를 본 것도, 카리반에서 자른 것도,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경관과 여러 가지 박물관의 신기한 것들을 마음껏 눈과 가슴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큰딸 예진이는 이제 꽤 컸는지 제법 관광을 합니다. 은택이 은찬이도 덩달아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아름다운 행복. 우리 은택이와 은찬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나 봅니다.



동영상 부문 수상작

- 대상 : 오찬영 <내 동생을 소개합니다>
 우수상 : 광상학 <제주도에서의 아름다운 행복>, 김진미 <엄마의 시선>
 입상 : 유은석 <Smile, You!>, 박영길 <민유네 가족의 행복 이야기>, 오경란 <빛나의 성장 이야기>, 장희용 <한편승부>, 김정희 <동윤나비가 찾아왔어요!>, 박현철 <우준이를 통해 완성된 우리 가족 이야기>, 신용운 <행복한 우리 가족>



2014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 가족과 홀트 임직원, 송재호 홍보대사.

올해 8회째를 맞은 ‘아름다운 행복 공모전’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주)니콘이미징코리아의 협찬으로 진행된, 입양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시선을 가지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고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행사입니다.

사진 부문은 총 78점, 동영상 부문은 12점이 출품됐고, 각 부문 대상, 우수상, 입상 순으로 총 2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작품의 수준이 높아져 심사가 힘들 때도 있다는 심사위원 조세현 작가님의 말처럼 많은 응모자들이 훌륭한 작품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5월 16일 열린 시상식에는 말리 홀트 이사장님,

송재호 홍보대사님, 김대열 회장이 참석해 시상해 해주셨습니다. 말리 홀트 이사장님은 “예전에는 아이들이 국내에서 입양이 잘 안 돼 해외로 많이 갔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많은 입양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니 기쁘다”고 전하셨습니다.

심사를 맡아주신 송재호 홍보대사님 또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양가족들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행복의 순간들을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관심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응모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Holt

글_곽소민·홍보팀



미소천사, 세상을 향해 웃다!

두개골 조기유합증을 가진 시현(가명, 33개월)이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도 연신 웃는다. 어린 나이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환한 웃음 하나로 주위를 모두 밝히는 시현이의 별명은 미소천사. 이제 걸음마를 떤 시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이 함께 미소 지으며 손짓하고 있다.

호기심 가득한 미소천사

위탁모 서정순(39) 씨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시현이는 머리에 빙빙 두른 붕대 따위는 별것 아니라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봄 햇살을 가득 받아 피어난 꽃들 사이로 벌레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영리한 눈으로 관찰하는 시현이. 이제 막 세상을 향해 걸음마를 떤 아이에게 세상은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시현이는 2011년 9월, 창원에서 태어났다. 초산이었던 친모는 급작스러운 산통으로 집에서 홀로 아이를 낳게 돼, 난산의 위험 속에서 시현이는 태어났다. 그렇게 힘들게 세상의 빛을 봤건만, 친모가 키울 수 없는 사정이라 아기는 홀트에 맡겨지게 됐다. 하지만 아이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큰 탈 없이 잘 자랐다.

시현이는 말이 늦고 산만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고, 여느 아이와 사뭇 달라 관심 속에서 지켜보아야 했다. 하지만 위탁모 서정순 씨의 가족은 모두 시현이로 인해 웃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랑을 쏟았다. 비록 아이가 말은 늦었지만, 늘 웃는 얼굴에 떼도 잘 안 쓰고, 긍정적이고 외출하는 걸 좋아해 밖에 나가면 보는 사람마다 손을 흔들어줬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낫을 가리고 까칠해서 위탁모가 있는 아파트 사람들에게 '까도남'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는데, 이제는 항상 예쁘게 웃어줘서 '미소남'으로 불린다.

두상 교정을 하던 중 알게 된 두개골유합증

그러다가 18개월 즈음 홀트 병원에서 정기진료를 받던 중 아이의 얼굴 모양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른쪽 볼이 더 커서 얼굴의 균형이 안 맞아 보이며 자주 비틀어지는 것 같다고 한 것.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두상 교정을 하기로 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시현이의 얼굴은 제자리를 찾아갔고 상태는 많이 교정되는 듯했다. 여전히 말은 또래보다 늦었지만 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올해 2월, 보정장치 제거를 위해 CT를 찍으러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마치고 가려던 중 담당 의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위탁모를 불렀다. 시현이에게 두개골 조기유합증이 있는 것 같다고... 이 증상은 '뇌를 싸고 있는 머리뼈 봉합선이 비정상적으로 일찍 닫혀서 두개골의 성장과 발육에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아이들의 두개골 성장은 뇌가 자라면서 두개골을 미는 힘으로 인해 형성된다. 우리의 두개골에는 6개의 성장선을 비롯한 많은 성장선이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못한 경우 이 두개골 조기유합증이 발생된다. 경과에 따라서 뇌의 발육 이상뿐 아니라 지능 저하, 시력 장애 등도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생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탁모 서정순 씨는 "시현이가 병을 빨리 발견한 건 정말 행운이에요. 하지만 그날 병원에서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평평 울었어요"라며 그때를 떠올렸다.

시현이의 말과 행동 발달이 늦었던 것은 이 병 때문이었던 것이다. 결국 3월 13일 시현이는 닫힌 두개골을 인위적으로 넓혀주는 수술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힘든 시련이지만 머리에 박힌 여러 개의 나사가 시현이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니 안심이 됐다.



1 닫힌 두개골을 인위적으로 넓혀주는 수술을 받았다. 2 수술 후 병실로 이동하는 시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수술

머리에 붕대를 감아서 불편해 보이는데도, 시현이는 신나게 잘 뛰어논다. 위탁모는 아침·저녁마다 수술 부위를 소독해주고 머리에 꽂힌 철심의 나사도 조여줘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수술 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호기심이 많아서 책장 위에 놓인 책이나 물건들을 이리저리 꺼내보는 시현이. 아직은 자신에게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대답을 하지만 사용하는 단어는 한정적이다. 하지만 위탁모가 잘 보살핀 결과 같은 수술을 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다. 시현이는 6월 9일 두개골에 박은 철심 제거 수술을 받게 된다. 시현이가 아무쪼록 무사히 수술받고, 더 건강한 미소를 띤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본다. #Holt

글 _ 객소민 · 홍보팀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봄을 맞아 여러 사람들의 축복 속에 돌잔치를 열었던 별이, 사랑이, 하늘이, 희망이는 현재 위탁가정의 보살핌 속에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고 축하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희망의 디딤돌, 홀트드림센터(In Cambodia)를 가다!

홀트학교 선생님들이 올해 1월 캄보디아 드림센터로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족한 예체능 교육을 하고, 새로운 꿈을 채워주기 위해 떠난 여정에서 홀트학교 선생님들은 아이처럼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의 디딤돌을 놓아주기 위해 떠난 나눔 교육의 현장, 캄보디아 트라피앙 안찬 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악시간에 실로폰을 연주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K-POP 음악에 맞춰 한삼을 흔들리며 춤을 추는 아이들.

홀트학교 선생님들, 홀트드림센터로 가다

흥겨운 K-POP 음악에 맞춰 삼색의 예쁜 한삼이 훑날리고 열정적인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구호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이곳은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트라피앙 안찬 마을, 교육과 경제적 빈곤으로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홀트드림센터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지만 모두 하나 되어 리듬에 몸을 맡긴 채 퓨전 탈춤을 추는 그 순간만큼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2014년 1월 12일, 김봉환 교감선생님과 7인의 홀트학교 선생님들은 부푼 가슴을 안고 자매결연을 맺은 캄보디아의 홀트드림센터로 떠났습니다. 6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와 다른 문화·사회적 환경을 지닌 160명의 학생을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캄보디아는 UN이 정한 최빈국 중 하나며, 여러 방면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긴 했지만 직접 마주한 그곳은 생각보다 더 압도한 현실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우리나라 1960·70년대를 떠올리게 했고, 신발도 신지 못한 아이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어느새 홀트드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꺼낸 짐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제게 먼저 다가와 푹푹박 한국어로 정겹게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니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날아갔습니다. 작고 어린 그들이지만 해맑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는 모습에서 희망과 설렘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두근거리는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예체능 교육 나눔 봉사를 통해 열정으로 가득 찬 시간

트라피앙 안찬 지역은 프놈펜에서 강제 이주를 당해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홀트드림센터는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쉼터요, 나눔의 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여러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캄보디아인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었고,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홀트인의 모토는 낯선 이국땅에서도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홀트드림센터는 앞으로 캄보디아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아이들을 지원해주는 배움의 통로이기에 낙후된 시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엔 희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선생님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폭 빠져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우려는 의욕으로 가득한 아이들. 그 배움에 대한 갈망을 알기에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도 마다치 않고 아이들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1차로 먼저 드림센터를 다녀오신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현지 교육이 영어와 한국어 위주로 실시돼 아이들의 예체능 분야 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아이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선보인 미술쇼.

그렇게 5박 7일의 일정 동안 퓨전 탈춤과 K-POP 댄스를 비롯해 모형 비행기 만들기, 리듬 합주, 레크리에이션, 풍선 아트, 팔찌 공예, 페이스 페인팅, 특식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쉬운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했고,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동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홀트드림센터를 떠나며

홀트학교 교사 8인의 캄보디아로의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진문화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명의 이기를 알려주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배움에 대한 열정과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기에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금 되새겨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최선을 다해 배우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이곳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된 배움의 공동체로서 함께 지낸 그 시간 동안, 디지털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잊고 살았던 아날로그 감성 등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태경 홀트드림센터장님과 스로른 룬다 프로젝트 매니저님을 비롯해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한 통역 및 수업 활동을 도와주신 두 분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홀트드림센터가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한 희망의 디딤돌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처럼 나눔의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이번 여름, 캄보디아로 떠나 보는 건 어떨까요? #홀

글 _ 강민정(교사) · 홀트학교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지은(가명 22세) 씨. 엄마는 아이들에게 뭐든 '지금 당장' 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지만, 아이 병원비로 빚만 잔뜩 안고 교통사고까지 당해 그 포부는 꿈이 된 채, 아이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하루하루가 현실이 됐습니다. 어린 엄마에게 세상은 험난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겨냅니다.

아픈 별을 가진 별바라기 엄마

'아픈 아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온, 난 나쁜 엄마입니다'

몇 달 전,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라는 글로 시작되는 몇 장의 편지. 은수(가명, 5세)와 은우(가명, 3세) 남매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지은 씨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였습니다. 그 속에는 지은 씨가 지났던 몇 년간의 이야기들이 빼곡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지은 씨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병행하던 때, 자원봉사 과외를 하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했고,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군에 입대하며 연락이 두절됐고, 어렵게 찾았던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그를 또 만날 시에는 아이들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를 다신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온 지은 씨. 그 후로 아이들의 아빠는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은우가 54일 되던 날, 원인 모를 복통과 고열로 많이 아파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고, 상태가 악화되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3달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뒤, 병원에서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 뇌파 검사와 각종 검사를 권했지만,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병원 빚을 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은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은우는 여전히 같은 증세를 보여 통일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치료조차 어렵습니다. 지은 씨는 아픈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나쁜 엄마’라 말합니다.



“
은수와 은우는
나의 앞길을 반짝반짝 비추는 별입니다
”

옥탑방마저 비워야 하는 현실

큰 도로가에 위치한 세차장의 옥탑방, 가파른 계단에 곰팡이가 가득한 방 안이 지은 씨와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꿈 많은 은수와 늘 기침과 고열이 떨어지지 않는 은우가 생활하기에는 누가 봐도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지은 씨와 아이들에게는 가장 지키고 싶은 소중한 공간입니다. 지은 씨는 8년 전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지은 씨의 친권이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탓에, 아버지의 소득이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네 네 식구에게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어머니가 공공 근로로 받아오시는 급여 50만 원 남짓... 그나마 이 돈도 월세 36만 원, 수도세·전기세 10만 원 등으로 46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매달 빚으로 생활하는 형편이지만, 네 식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어 그래도 행복하다는 지

은 씨, 그러나 이마저도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집은 구할 수도 없고, 아이 둘을 부둥켜안은 지은 씨는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가슴 아픈 말

지은 씨는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빈혈 수치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두 아이를 생각하면 지은 씨는 자신의 치료는 사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치료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은 씨는 아이들에게 “다음에, 다음에”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말이라고 했습니다. 은수는 유치원에 다닌 이후로 친구들이 방과 후에 듣는 발레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지은 씨를 조릅니다. 또 유치원에서 하는 재롱잔치에 왜 아빠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끼니조차 걱정인 지은 씨는 그럴 때마다 늘 “다음에, 다음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보이던 지은 씨는 “다음에”라는 말은 자신에게 아픔이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기도 하며, 은우의 건강이 좋아져서 하루빨리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캄캄한 인생을 밝혀주는 나의 두 별

일을 해서 형편이 나아지면 은수와 은우에게 “다음에”가 아닌 “그래, 지금 해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꿈이라는 지은 씨. 지은 씨는 고단한 삶이지만 자신 인생의 두 별, 은수와 은우를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의 선택을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나날 속에서도, 두 아이와 함께라서 행복하다는 지은 씨. 남들과 같은 일상의 행복이 이 가족에게도 어서 빨리 꼭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만은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지은 씨와 아이들의 앞날이 반짝반짝 빛나길 바랍니다. #Holt

글 _ 배은지(사회복지사) · 부산사무소



‘곳곳GoodGood한 엄마’ 캠페인 후원

1899-0923 / 02-331-7075
www.holt.or.kr

‘곳곳GoodGood한 엄마’는 미혼 양육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곳 곳하고 Good(좋은)한 엄마로 살아가길 희망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1년간 지원됩니다. 지은 씨의 가정을 위해서도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건네주세요.



장애란 무엇인가?

홀트아동복지회는 전후 우리나라에서 선구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시작했으며, 일산복지타운, 고양장애 인복지관과 홀트학교를 설립하는 등 꾸준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왔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발휘하면서 사는 세상을 꿈꾸는 홀트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을 개선시키고, 이해를 도모하고자, 장애란 무엇이고 우리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 보고, 함께 보듬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역사 속의 장애, 장애인

장애를 인식하고 묘사하는 관점은 인류 역사와 함께 변화해왔다. 의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장애는 신이 내린 저주의 결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신이 정해놓은 금기를 범했기에 벌을 받아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샤머니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의 점술사는 간질병을 100% 치료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간질 치료법은 송곳과 철사 조각을 가지고 간질 환자의 머리 뒷부분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철사를 넣어 몇 번 찌르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간질은 낮게 되었지만 10명 중 7~8명은 사망, 2~3명은 반신불수의 장애인이 되거나 식물인간이 되었다.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장애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을 사람과는 다른 이질집단(異質集團)으로 여겨, 장애인을 바보, 껌보, 언청이, 난쟁이, 절뚝발이, 앓은뱅이 등 접미사 '이'나 '보'를 붙여 부르며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을 멸시하는 태도가 당연하게 여겨졌다.

장애인, 사회 통합적 명칭 변화가 필요

이러한 차별적 관점은 '장애'라는 명칭으로 여전히 존재하는데, 장애의 '장(障)'은 '막히다'는 뜻을 가졌고 '애(碍)'는 '거리끼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막히고 거리끼는 사람'이란 뜻으로 태도의 차별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명칭이다.

장애인에 대한 명칭은 각 나라마다 그 사회의 태도나 관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장애인을 '장애자(障害者)'로 불러 해를 당해 막힌 사람으로 보고 있고, 중국에서는 장애를 질병의 관점으로 보아 장애인을 '잔질인(殘疾人)'이라 불러 질병이 남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장애에 대한 개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장애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집중해 'The Handicapped'라고 불렀으며, 능력이 없거나 저하된 사람을 뜻한 'The Disabled'도 쓰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의 'People with Disability'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장애인의 대칭적 의미는 비장애인(People without Disability)이 된다.

노인을 어르신으로,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꾸어 부르듯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장애인의 명칭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장애인을 대체할 이상적인 명칭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은 차별 멸시의 관점에서 보호의 관점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에 따른 사회 통합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가치 발견과 소명적 직업

장애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인식하기를 거부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자 한다면, 장애인에게 많은 장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The Differently Abled(또 다른 가능자)'의 관점이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에서 비장애인보다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피아노 조율사, 안마사, 향수 감별사, 기내식 감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심지어 예견적 지혜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애널리스트,



1 장애인 휠체어 농구대회.
2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홀트 카페.

입양에 대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 홀트한사랑회 강은미 회장을 만나다



2013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 입양가족 모임인 한사랑회 회장을 역임하며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강은미(43) 회장. 강 회장은 입양 부모로서 입양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바쁜 와중에도 입양 반편견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입양이 '가족이 되는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강 회장의 행복한 입양 이야기를 소개한다.

애교 많은 두 딸 덕에 웃음꽃이 가득 핀 가족

홀트한사랑회 강은미 회장은 전대 회장이기도 한 남편 송중우(50) 씨와 결혼 전 가족 계획을 세울 당시, '자식을 하나 놓고 입양도 한 명 하자'는 말에 흔쾌히 동의했다. 남편은 어릴 때 시설에서 자라는 고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경험이 인상에 남았기 때문이고, 강 회장 역시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서 동네 아이 하나를 돌봐주시던 기억 때문에 '핏줄로 엮인 게 아니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아들 수환이(19)를 낳고 2003년 딸 다녕이(12)를 입양했다.

처음 다녕이를 봤을 때는 유난히 자그맣던 아기였는데 그래서 더 사랑스러웠던 것 같다는 강 회장. "다녕이를 낳아준 엄마가 생각났던 것인지, 마음이 울컥해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술 많은 다녕이의 머리카락만 흐린 눈 아래 까맣게 보이던 일이 떠오르네요"라며 당시를 회상하는 그녀. 딸이라 애교가 많고, 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키웠단다. 다녕이를 입양하고 보니 딸 키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막내딸 다운(8)이도 입양했다. 다운이 역시 애교가 넘쳤고, 아빠는 애교 많은 딸내미들 덕에 행복해했으며, 집안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3 음악 치료.
4 일산재활관 작업장.
5 직업재활관 도예실습.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폐성 장애인은 독창성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지지치 않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우체국의 우편 분류 작업에 투입되고, 지적장애인은 사회성이 돋보이는 것은 물론 매사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아 노인 요양 인력으로 적합하게 투입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장애의 약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강점을 발굴하고 살려 이들이 사회에서 존재가치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직업생활을 할 때는 더욱 장점을 개발하고 그것의 방향으로 접근 해야 한다.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업(job)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적 직업(Vocation)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중증·중복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고유의 가치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글**

글 _ 김종인 ·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1 오빠 수환이를 잘 따르는 다윤·다녕 자매.
2 반편견 교육 수업 중인 강 회장.



아이들을 위한 입양 반편견 교육

막내딸이 1살 때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입양 부모 중에 입양 관련 교육을 할 강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교육을 받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등에서 활동했다.

입양에 대해서, 어린이들이나 입양 부모, 사회가 가지는 편견 등은 그 내용이 다양하다. 그중에는 ‘넌 고아니?’ ‘가짜 엄마랑 사는지?’ 혹은 ‘왜 엄마가 버렸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때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미리 알려줘야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아요!”라고 힘주어 말하는 강 회장.

이들테면 ‘고아는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인데, 난 엄마 아빠가 있으니 고아가 아니야’ 또는 ‘엄마는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니 난 진짜 엄마가 있는 거고, 나를 낳아준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라 날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를 찾은 거야’라는 식으로 미리 대답할 말들을 아이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첫째 딸 다녕이가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출장을 가시고 영어선생님이 잠시 아이를 맡아주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반에 입양된 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앞줄에 앉은 학생들부터 한 명씩 ‘네가 입양된 아이니?’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다녕이는 제일 뒷줄에 앉아 있었고 차례를 기다리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는데, 부끄러워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니다. 이미 엄마에게 교육을 확실히 받은 탓에 오히려 ‘제가 입양됐어요!’라고 빨리 말하고 싶어 맘이 설레어서 그랬단다.

입양 반편견을 위한 선생님, 부모 교육

강은미 회장은 아이들이 새 학기에 들어가면 꼭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밝힌다고 한다. 그리고 반 아이들에게 입양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한다. 실제로 요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부터 입양은 ‘가족을 이루는 한 형태’로 명시되어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배우게 된다. 법적으로 우리는 ‘결혼, 출산,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

또한 입양 반편견 교육은 아이들과 선생님들뿐 아니라 예비 입양부모나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먼저 교육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분들 역시 공통적으로 가지는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다. ‘입양은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든가, ‘친생부모에게 피가 끌릴 것이라는 것’ ‘입양 사실을 공개하면 아이가 놀림을 당할 것’이라는 등이다. 연장아의 경우나 여러 번 파양이 됐을 경우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부모 교육을 1년 동안 받고, 아이 나이의 두 배 이상의 시간만큼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강은미 회장은 아이에게 입양에 대해 숨기고, 그 사실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부정적 피드백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아예 공개를 하고 아이에게 입양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한다고 말한다.

홀트는 친정, 입양은 곧 나의 생활

강 회장은 ‘우리 애를 잘 키워야 입양아들이 욕먹지 않는다’는 생각조차도 이전 하지 않는다. 그 생각 자체에도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고, 내 아이를 남과 구분 짓고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강요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사는 게 제일이다’고만 말한다.

“홀트를 생각할 때면, 사랑하는 두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마음 속 또 다른 친정 같아요.”

한사랑회 회장과 반편견 교육 강사 등으로 일하면서 거의 모든 생활의 2/3가 입양에 관련돼 있어 ‘입양이 곧 생활’이 돼버렸다는 강은미 회장. 강 회장은 입양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선되어 가족이 되는 일환으로서 사회적인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Holt

글 _곽소민 ·홍보팀



친부모에 대해 아이가 물어볼 때는?

아이들이 낳아준 엄마에 대해 가지는 궁금증은 본능적이고 당연한 호기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아이들이 6살 정도가 되면 ‘날 낳아준 엄마의 이름은 뭐야?’ ‘카톡 한번 보내 봐’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줘서 해줄 수 있는 답변은 최대한 해줘야 한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친생부모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자신을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 18세가 되었을 경우, 아이가 친부모를 찾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녕이의 경우, 4학년 때 친모를 찾는 여행연습의 일환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한 성인 입양인의 작품에 참여했다. 그때 다녕이는 친부모에게 던질 20가지 정도의 질문을 만들었다. ‘자신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었나?’ ‘키는 얼마나 크나?’ 같은 걸 물어보았다. 그 과정을 마쳤을 때, 아이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자신감을 찾고 친부모를 찾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고 ‘이젠 날 낳아준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한다. 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 회장도 새삼 깨닫게 됐다고 한다.



함께 성장하는 나눔 이야기 영실업 · 아이엠유리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걸어가며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기에 홀트가 많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홀트와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기쁨으로 세상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며, 영실업 · 아이엠유리 두 기업을 소개합니다.



www.youngtoys.co.kr

영실업 이야기



영실업(대표:한찬희)은 완구 회사다 보니 '아이들의 놀이 문화 쪽으로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2009년부터 홀트를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국산 완구 보다는 외국산 완구를 가지고 노는데, 보다 많은 아이들이 국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그를 통한 한국적인 감성과 빛나는 창의력을 길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홀트에 영실업의 자랑스러운 국산 장난감을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아이들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일하는 홀트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사회공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부족하게나마 저희 완구를 통해 지능, 언어 능력, 사고력 등을 개발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연상하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항상 저희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실업은 ‘후원이나 봉사는 주위에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 아직까지 외부에 알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런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이어서, 나눔이 사내에 활기를 주고 있다고 전합니다.

장난감 지원은 홀트를 통해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며, 보다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후원이 되도록 계획하겠다는 영실업. 향후 임직원들에게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하며, 회사 차원에서도 마음을 다해 돕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홀트를 오랫동안 조용히 후원해주셨던 진심 어린 마음 또한 전달받았습니다.

“ 장난감을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고 싶어요. ”



www.iamyuri.com

아이엠유리 이야기

I AM YURI

패션 전문 업체인 아이엠유리(대표:유리)는 홀트아동복지회와 2009년 봄부터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엠유리 (주)씨피엘엠’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8년 9월. 창립 멤버였던 백지영, 유리, 이현진, 함민희 등은 좋은 일도 하면서 사업을 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될 만한 믿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던 중 홀트아동복지회를 찾게 돼 바로 후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엠유리는 매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개최하는 바자회에 의류, 신발, 가방 등을 기부하고 있으며, 유리 씨는 홀트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지영 씨는 현재 사업을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능기부 등을 통해 홀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과 홍보대사 활동 등으로 홀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아이엠유리. 홀트를 통해 나눔의 행복을 알게 되니, 주위 패션 계통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길 권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더불어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함께 기부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를 돕는 동안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든 물품으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고 감사했다’는 아이엠유리.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홀트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따뜻한 마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



글 _ 서정기(사회복지사) · 후원팀

우리도 이제는 동화작가! 편견을 던지고 희망을 엮다

지난 4월 20일, 봄의 도래와 더불어 출판계를 놀라게 할 만한 작가진이 나타났습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12명의 지적장애인이 공동으로 2권의 그림책을 출간한 까닭이었습니다. 순수가 돋보여 더 아름다운 꿈의 세계, <달콤한 목욕>, <행복한 우산마을>에 초대를 받아 다녀왔습니다.



1 작업에 참여한 평균 연령 40대 이상인 작가들. (좌로부터) 박순열·양준혁·전복남·김신화 씨.
2 동화책에 사인 중인 하인섭 씨.



국내 최초 지적장애인 작가그룹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여름의 한 날, 갑작스레 가뭄이 찾아옵니다. 마을엔 결국, 양수차가 투입되고 양동으로 물을 받아 나르는 주민이 줄을 잇습니다. 하지만 공놀이에 빠져서 물이 끓긴 줄도 모른 3명의 주인공은 뒤늦게 야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아무리 돌려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냉장고의 사이다로 목욕하자는 제안을 하고 3명의 주인공은 시원한 사이다의 거품을 헤엄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수건이나 휴지로 닦고 또 문질러도 끈적이는 사이다가 여전히 피부에 남아 찝찝한 기분입니다.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누군가가 밖으로 나갑니다. 햇볕에 증발하고 남은 사이다는 동네의 개떼가 물려와 말끔히 훑아줍니다. 그날 밤, 마을은 축축한 비로 젖게 됩니다.

제목만으로도 유추가 되듯이 <달콤한 목욕>의 전개입니다. <행복한 우산마을>의 내용도 기발합니다.

우산을 짊어야 휠체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행주, 우산으로 신기한 마술쇼를 선보이는 인섭이, 라켓의 대용으로 우산을 사용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혜숙이, 저마다의 이유로 우산이 반드시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매일같이 우산을 배달해주는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녀석의 이름은 복실입니다. 그렇지만, 복실이의 방문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비디오 대여점 주인 동현이입니다. 우산이 없어도 되는데 자꾸만 우산을 가져다주는 복실이

너무나 귀찮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복실이 몸살에 걸립니다. 꼼짝도 못하는 복실을 대신해 우산을 건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침내, 마을은 불행에 빠집니다. 그러다 문득 동현이의 가게에 우산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제야 동현이는 복실이 한시도 거르지 않고 우산을 가져다 놓아둔 연유를 깨닫게 됩니다. 동현이의 가게에 들러 우산을 찾아간 모두는 웃음을 되찾습니다.

장애인들이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삽화도 손수 그려 화제가 된 2권의 동화책. 바로 홀트일산복지타운 내 지적장애인 12명이 협력해 만든 창작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동화책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시도된 터라 더 의의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한다는 자체에 의의

“시작은 단순한 데서 비롯됐어요.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흔치 않은 지적장애가족에게 색다른 세상을 경험케 해주고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재할 프로그램에 신청(2009년), 의안이 선정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거죠. 참여는 교육의 특성에 따라서 강사와의 소통이 가능한 희망자에 한해 구성했고, 참고로 멤버들의 연령은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합니다.”

프로젝트의 전반을 진행한 홀트일산복지타운 기획행정팀 이창신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출발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미디어를 익숙하게 여기는 데 카메라만 한 매개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촬영에 있어 기법이나 기술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사체의 유형을 별도로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프레임에 담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하루에 30장만 촬영해보면 되는 식으로 숙제를 내주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동화의 기반이 될 만한 스토리는 자연스럽게 탄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곤 했는데 이를 통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나중엔 소소하지만 저희만의 사진전도 개최하게 됐답니다(미소). 반응이요?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세간의 관심을 끌기엔 충분했죠. 이를 통해 멤버들의 자신감도 상승했구요.”





3 프로젝트 총 진행자인 이창신 선생님(맨 뒤)과 작가들(최행주·전복남·송혜숙·박지혜·김신화·박순열·양준혁 씨).

4 직접 제작한 동화책들을 들고 즐거워하는 작가들.



사진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나아가 타인의 사정을 이해하는 방법에 조금 능숙해진 멤버들은 2011년, 그림책을 만드는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안고 있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공유하며 인물은 말할 것도 없고 흥미로운 일화들까지 탄탄하게 빚어 나갔습니다. 복실이를 포함해 동화에 등장하는 이름이 실제로 멤버들의 성향을 반영해 붙인 것이라고 하니 더 현실감이 느껴집니다.

풍경, 물건, 사람, 동물 등 주제에 상관없이 매일 한 편 그림을 그려 제출해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책을 향한 열정과 부단한 노력은 멤버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긋는 것도 버거워했던 교육생이 나무며 집을 스케치해내는 경지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새삼, 멤버들을 포기하지 않게 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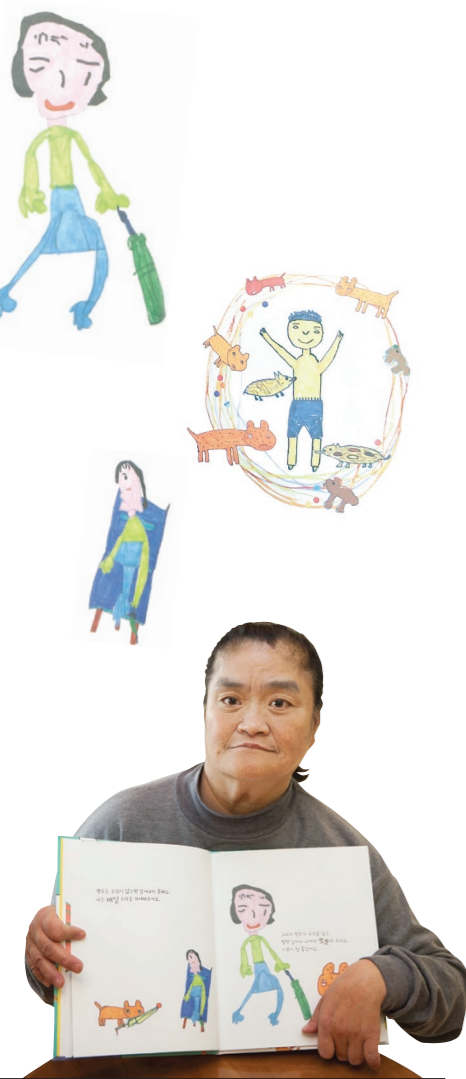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힘은 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작업을 함께할 시간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으니까요. <달콤한 목록>에 나오는 냉장고의 사이다를 제가 다 그려 넣었는데 얼마나 많은지... 열 손가락이 다 아파서 꺾꺾 주물러가면서 했죠. 잘했나요?”

갓 출간돼서 구수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달콤한 목록>을 펼쳐 들며 김신화 씨가 연신 자랑을 합니다. 역시 즐기는 사람의 에너지를 따를 자는 없는 모양입니다. 이에 박순열 씨도 책장을 부지런히 넘기다 전신에 말라붙은 사이다를 개떼가 물려와 활아 내주는 장면에서 멈춥니다. 그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긴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키운 세퍼드를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참 예뻐했는데... 밥도 주고 산책도 시켜줬죠. 보고 싶네요.”

그러자 박지혜 씨도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럴 만한 것이, <행복한 우산마을>의 주인공 복실이는 실제로 그녀가 최근까지 키워온 시추를 모델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하늘로 간 복실이. 책이 나온 것도 못 보고 간 게 못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복실이를 그리는 동안엔 행복했노라 말합니다. 서점에 책이 진열돼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는 다면서도 저서를 읽는 모두가 행복해하기를 소망한다고 아무지게 입을 모으는 멤버들, 올해는 커뮤니티 맵핑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영역의 문을 끊임 없이 노크하는 그들의 용기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HWT



홀트에서 놀며 배우는 아이들



홀트일시보호소 내에 아이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공간이 생겼습니다. 홀트의 홍보대사님도 이 공간이 아이들을 위해 잘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파티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신체·정서와 사회적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도 얻고, 새로운 장난감들로 놀며 다양한 놀이법을 배우는 등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나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1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 공간을 축하하는 김대열 회장, 정혜영, 송재호, 선홍보대사. 2 아이들의 인지발달을 위한 교구와 장난감들. 3 미술 활동 시간에 아이들이 만든 작품.

래됐고, 요즘처럼 입양 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이 높을 때까지 양육해본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연령에 맞는 놀이 방법을 배워, 위탁 아동들의 언어·사회·정서 발달을 도울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과 위탁모를 위해 이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놀이 프로그램 공간에 위탁모의 손을 잡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발달 상태에 대해 위탁모의 문진표를 받아놓았으며, 한 달마다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 담당 선생님이 재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4월 초에 한 차례 점검을 했는데 아이들의 인지능력, 사회성 등이 모두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신이 나 있습니다. 무조건 떼를 쓰던 아이들도 이제 말로 설득이 되고, 한자리에 앉전히 앉아 간식도 먹으며, 놀이기구를 양보하며 순서대로 타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인사하고 신발을 벗은 후 신발 안에 양말을 집어넣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는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위탁모가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울고 찾아 헤매던 아이들이 3월 한 달이 지나자 2시간 실컷 놀고 나면 위탁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믿음을 갖게 돼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탁 어머니들도 놀이 방법과 훈육에 대해 배우고, 그 방법이 가정으로까지 이어져 좋은 효과를 보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 연령이 높지 않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특성과 발달 단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담당 선생님들은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부디 이곳이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즐거운 곳으로 계속 기억되길 바랍니다. **하트**

글 _ 김혜성 팀장 · 아동양육팀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놀이 배움터

지난 2월, 홀트일시보호소는 활동 프로그램 공간 마련을 위한 준비로 한창 분주했습니다. 바로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을 위해 신체·정서·사회적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시작하려고 대대적인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도록 꼼꼼하게 인테리어를 마친 후, 각종 교구와 장난감, 신체활동 기구 등도 준비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입에 넣으려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자원봉사자들은 장난감과 교구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닦아서 정리하는 등 정성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3월 7일, 회장님, 각 실장님, 송재호 홍보대사님, 선·정혜영 홍보대사님, 아이들과 위탁모가 함께 새로운 놀이배움터를 열게 된 것을 기념하는 파티를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해주신 송재호 홍보대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 마련된 이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돼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축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 사회공헌 ●

LIG 손해보험, '365 베이비 케어 키트' 협약식 및 사회공헌기금 5천만 원 기부



LIG 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병헌)과 김성은 홍보대사, 홀트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6일 출산 미혼모들을 위한 '365 베이비 케어 키트' 협약식을 갖고,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용마로지스, 1억 원 상당 이유식 전달



물류회사 (주)용마로지스(대표: 허중구)는 입양대상 아동을 돕기 위해 4월 23일 박상순 이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1억 원 상당의 희망 나눔 이유식을 전달했다.

해피랜드 F&C, 1억 원 상당 아동용품 기부



유아패션그룹인 해피랜드F&C(회장: 임용빈)는 우리회의 입양대상 아동을 돕기 위해 4월 22일 1억 원 상당의 희망 나눔 아동용품을 기부했다.

한경희뷰티, 7천만 원 상당 화장품 전달

스마트 뷰티 전문 화장품 회사인 (주)한경희뷰티(대표: 한경희)는 소외계층 지원 기금 마련을 위



해 4월 21일 7천만 원 상당의 희망 나눔 화장품을 전달했다.

남진 데뷔 50주년, 팬과 함께 쌀 100포대 기부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남진이 4월 8일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가진 데뷔 50주년 기자회견에서 팬클럽과 함께 쌀 100포대를 기부했다. 남진은 3월 말, 50주년 기념 앨범 '파트너'를 발표했으며, 올해 10월 50주년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피니트 국내의 팬들, 쌀 화환 18t 전달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국내외 팬들이 3월 28일 쌀 화환 총 18.27t을 기부했다. 전달된 쌀은 인피니트 콘서트 '2014 INFINITE 1st WORLD TOUR ONE GREAT STEP'을 응원하기 위해 모아진 것이다.

아미코스메틱 4천만 원 기부

코스메슈티컬 전문 화장품 회사인 (주)아미코스메틱(대표: 이경록)은 소외계층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3월 26일 4천만 원 상당의 희망 나눔 화장품을 기부했다.



● 본부 ●

2014 국내 입양가족 사진 및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



5월 16일 우리회 강당에서 말리 홀트 이사장, 김대열 회장, 송재호 홍보대사와 입양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입양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의 후원과 (주)니콘이미징코리아의 협찬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국내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사진 부문 대상은 장희용 씨(부산시), 동영상 부문 대상은 오찬영 군(인천시) 등이 수상했다.



*세월호 사고 관련하여 올해 '입양의 날' 행사들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몽골 성긴해르른 구청과 업무협약 체결



우리회는 4월 29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대표적 도시민병가 게르촌인 성긴해르른 지역 구청과 몽골 저소득 가정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4월부터 몽골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가족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홀트아동복지회 온라인서포터즈 1기 발대식



홀트아동복지회 온라인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이 5월 13일 열렸다. 온라인 서포터즈는 우리회의 사업과 이야기들을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고,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온라인 나눔 활동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20명이 서포터즈 1기로 참여하게 됐으며, 우리회를 위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뜻깊은 자리였다.

국외협력팀, 국외입양사후관리 강화 회의



우리회 국외협력팀 유덕진 팀장은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국 시카고 소재 Sunny Ridge 기관에서 미국 내 5개 협력기관 대표들과 '국외입양 사후관리 강화와 MOU 갱신 및 협력-재위탁 기관에 대한 조치'를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회의 결과 상기 협력기관 모두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위제너레이션,

업무 제휴 및 배우 이윤미 씨 재능 기부



우리회는 4월 10일 온라인 기부 서비스 위제너레이션(대표: 홍기대)과 온라인 모금 캠페인 활성화 및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별히 이날은 모델 겸 배우인 이윤미 씨와 함께 장애인 특수 휠체어 마련을 위한 인터뷰 촬영도 함께 이루어졌다. 위제너레이션은 온

라인 소셜 기부 서비스로, 원하는 자선단체의 캠페인에 기부하면 해당 캠페인에 연결된 유명인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자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앞으로 우리회는 다양한 분야의 자선단체들과 업무 제휴를 맺을 계획이다.

몽골 화도교회와 좋은 열매 홀스쿨 운영, 업무 협약 체결



우리회는 4월 4일 본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도교회(담임목사: 황재우)와 몽골 남양주 좋은 열매 홀스쿨 운영권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회는 화도교회와 함께 몽골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도와 결식아동 돕기 및 상담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14 상담 실무자 회의 개최



3월 28일 본부 및 지방사무소의 상담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상담 실무자 회의'가 열렸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평가했고, 입양 실무 업무회의를 통해 국내 입양 및 친생부모 상담에 내실을 기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지방사무소 ●

강원사무소, 입양의 날 유공자 장관·도지사 표창
입양의 날인 5월 11일을 맞이해 이재승 강원사무소장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고, 삼척 김순



옹 님, 춘천 차경종 님 등 입양부모님과 홀트강원후원회 후원자 신명숙 님이 강원도지사표창을 받으면서 입양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구사무소, 의료문제 이동돌기 사랑나눔 바자회



대구사무소는 5월 10일 대구 여성아이병원과 함께 의료문제이동 돌기 바자회를 열었다. 제회 바자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바자회에 참여했고, 바자회와 더불어 본회의 사업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인천사무소, 입양 후 부모 교육



3월 20일까지 약 35명의 양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첫 입양 후 부모 교육이 진행됐다. 많은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을 통해 서로 정보도 얻고,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교육 후 지역 모임으로 이어져 다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홀트일산복지타운, 해리 홀트 할아버지 50주기 추모
4월 28일, 홀트아동복지회의 설립자인 해리 홀트



할아버지의 50주기 추모예배가 홀트타운에서 있었다. 김주현 목사님께서 '내가 만들었느니라'는 설교로 홀트의 설립 목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얼마 전 홀트타운을 떠나 지역사회로 독립한 박성일·최행주 부부가 추모글을 통해 지난 50여 년간 보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겼다.

열정과 감동의 무대, 홀트 국제초청 휠체어 농구 대회



우리회와 고양시 주최로 열린 '국제초청 고양시장 컵 제20회 홀트전국 휠체어 농구 대회'가 홀트일산복지타운 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4월 21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주 휠체어 농구단이 결승 B조 홀트를 이기고 올라온 무궁화 전자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홀트전국 휠체어 농구 대회는 지역 주민 및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열정을 보여줬고, 역동적인 경기 진행으로 감동을 주어 20년 동안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제9회 전국장애인문학제 실시

복지관 개관 10주년 및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9회 전국장애인 문학제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총 307편의 작품이 공모됐고, 이 중 24명의 작품을 선발해 시상했다. 참여해주신 모든 장애인 및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린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누리합창단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재능나눔 공연



5월 13일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의 합창교실 '누리합창단'의 재능나눔 공연이 부산대학교병원 로비에서 열렸다.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아름다운 가곡과 신나는 트로트까지 다양한 선곡으로 병원을 오가는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시간이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 어르신 염색 서비스 '다시 찾은 이팔청춘'



4월 12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젊음을 선사하기 위한 염색 서비스를 실시했다. 어르신들이 홀로 염색하시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 동성제약 염색봉사단의 손길을 통한 염색 서비스로 어르신들과 온도도 나눌 수 있었다.

● 미혼모자시설 ●

대전클로버, 입소 아동 돌잔치



4월 29일 대전클로버에서 돌을 맞은 아동을 위한 돌잔치가 마련됐다. 이 날은 1년 동안 건강히 잘 자란 아이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함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침뜰, 두산과 함께 '청소년 두리모 직업교육 지원사업' 기금 전달식



아침뜰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서 실시한 '두산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두리모 직업교육 지원사업'에 2013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선정돼 4월 7일 청소년 두리모 직업교육 지원비로 1천 33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저학력과 빈곤 상태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청소년 두리모들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행복한멜로디 가족합창단



마포구 내 2인 이상의 가족들이 모여 음악으로 교감하고 행복해지는 '멜로디 가족 합창단 프로그램'이 매월 2회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음악교실과 다양한 합창곡을 연습하는 합창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이 음악을 통해 서로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매호중학교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한층 더 소통하기'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5월 10일과 17일 이틀간 매호중학교와 연계해 '우리 가족 한층 더 소통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가계도를 그려보고, 우리 가족의 유형이

어떠한지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우리 가족의 대화 유형을 탐색해보고 가족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가족의 기능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슈퍼버스의 탄생' 관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5월 2일 홀트아동복지회와 EM 미디어가 함께하는 어린이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슈퍼버스의 탄생' 공연 행사를 가졌다.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남시 지역주민 42가정(총 143명)과 함께한 이 행사는 공연 관람을 통해 가족의 여가문화 조성 및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춘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부화재 '베트남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사업'



동부화재와 함께 4월 16일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내 베트남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1차 사업' 환영식을 가졌다. 본 지원 사업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중 2년 이상 친정 부모를 만나지 못한 9가정을 선정해 16일부터 28일까지 가정 방문 및 서울시티투어 등 7박 8일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홀트심리상담센터, 비산초등학교와 업무 협약식

지난 3월 24일 비산초등학교와 홀트심리상담센터의 업무 협약식이 있었다.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비산초등학교의 교육 복지 대상자들에게 홀트 아동복지회가 실시하는 복지사업 및 상담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전주영아원 ●

전주영아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지난 5월 5일 제92회 어린이날을 맞아 본원 직원 임지숙 생활지도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 아동들에게 건강한 성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됐다.

● 어린이집 ●

마포어린이집, 화재 안전교육



4월 7일 (주)대교 소빅스의 주최로 화재 안전교육이 열렸다. 시청각 교육 및 실전 활동을 통해 화재 시 대피하는 방법을 몸으로 체험하며 즐겁게 참여했다. 어린이집 자체 교육과 다른 방법의 화재 안전교육이어서 원아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유익한 교육이었다.

중동 어린이집

5월 8일 중동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아침이슬농원'에서 딸기 체험학습을 했다. 하우스 안에 있는 텃밭에서 딸기를 직접 따보고, 향기도 맡고, 맛도 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고사리 같은 작은 두 손으



로 딸기를 주물러 딸기잼도 직접 만들어보는 오감만족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전국후원회 ●

광주후원회, '친환경농업 사과 숙기' 지원봉사



홀트광주후원회(회장: 김은숙)의 18명 후원회원들은 2014년, 3회에 걸쳐 전남 곡성 이팔청춘 사과농원의 지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매년 사과숙기 행사는 5월 중순경 실시하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농가를 경제적으로 돕고자 함이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홀트 후원회원의 활동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전북후원회, '미숙아·장애아동 돕기' 일일차집



홀트 전북후원회(회장: 이화정)에서는 미숙아·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일일차집을 4월 10일 전주 시내에 소재한 커피숍 토브(TOV)에서 열었다. 전북 후원회원들이 한결같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모금된 기금은 미숙아·장애 아동들의 치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언니는 돈을 벌러 도시로 떠났고, 엄마는 구걸을 합니다.
가난을 벗어날 단 하나의 기회는 학교에 가는 것.
하지만 소녀 역시 학교를 그만두고 구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후원으로
이 아이가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4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동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재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응원합니다

“365 BABY CARE KITS”

LIG 손해보험  홀트아동복지회

365 BABY CARE KITS는 생활고를 겪는 미혼모자가정을 지원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응원 캠페인입니다.



우리는 이 아기들에게 ‘태어난 걸 축하해’라는 말보다 미혼모의 아기라는 말을 먼저 들려준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축하인사와 격려를 365 BABY CARE KITS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어머니이길 선택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365 BABY CARE KITS”의 의미

365 BABY CARE KITS는 미혼모자가정 아동양육물품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아동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보호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구성품 및 선정 가정 수

분유, 기저귀 등 양육물품 KIT를 미혼모자 단기 1개월(220가정) 및 장기 6개월(5가정)로 선정해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유아를 둔 미혼모자가정 (2012년 5월 7일 이후 출생자)
- 생활고로 아동양육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 입양숙려제기간, 미혼모자시설 입소 전 및 퇴소 후 아동양육물품이 필요한 가정
 - 일시적 고용단절 및 정부지원 심사기간 등으로 긴급한 아동양육물품이 필요한 가정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10년 후를 대비한 아이들 교육자금
 결혼 20주년에 가기로 약속했던 두 번째 신혼여행 자금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 준비하는 노후자금...

당신의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에
 신한은 금융상품 하나하나에도 더 신경써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커져도 실질적인 수익을 드리는 따뜻한 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금융-신한금융투자

따뜻한 미래를 열어가는 [2014 신한 중위험 중수익 프로젝트]

변동성 크고 불안정한 2014년 투자환경에 발맞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위한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상담전화: 1600-0119/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참조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4-02677호 (2014-04-22~2015-04-20)

프로들의 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